

북스

Books

조선 유학 거두에게 현실정치 길을 묻다

퇴계 vs 율곡

김영두 지음

유교에도 '명예의 전당'이 있다. 공자의 사당인 문묘에 신주를 모시는 문묘 배향은 도덕성과 후대에 끼친 정치적 영향력까지 곱고루 견비해야 할 사람만을 선택했다. 유교 국가를 전명했던 조선에서 성균관 문묘에 배향된 유학자는 18명, 이 중 일반인들에게 친숙한 이는 아마도 퇴계 이황과 율곡 이이일 것이다.

사학자 김영두씨의 신간 '퇴계 vs 율곡-누가 진정한 정치가인가'는 조선 유학의 양대 거두인 이들의 정치 철학과 삶을 이야기한다. 밀실과 몸싸움으로 대변되는 한국 정치에 옛 선인들의 지혜는 새로운 질문을 던져준다.

조선시대에는 학자와 정치가는 따로 분리되지 않았다. 자신의 학문과 경험을 정치라는 장을 통해 실현시켰던 것이다.

35살 차이가 나는 퇴계와 이이는 1558년 처음 만나 퇴계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십 여년 동안 서로 교유했다. 이들의 정치 사상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이들이 올린 상소다.

퇴계는 17살에 즉위한 어린 임금 선조에게 올린 상소 '무진옥조서'를 통해 자신의 학문과 경륜을 전수하고자 했다. 국정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원칙과 방향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밝히면서, 유교정치에 이상인 왕도정치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왕통의 승계를 중요하게 여겨 인과 효를 온전하게 하고, 이간을 막아야 하며, 성리학에 힘써 다스림의 근본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사람의



퇴계 이황(왼쪽)과 율곡 이이 초상.

마음을 바로잡고, 심복이 되는 대신을 가까이 뒤 눈과 귀를 통하게 하고, 수양과 반성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했다.

대학자가 내놓은 국정운영의 원칙이 전혀 새롭거나 놀랍지는 않지만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강한 어조가 담겨있다.

퇴계는 "하찮고 흔한 일상을 벗어나지 않아도 실로 높고 깊으며 멀고 커서 다함이 없는 것이 거기에 있다"고 원칙의 중요함을 강조했다.

율곡이 선조에게 올린 상소 '만언봉사'는 선조가 신하들에게 내린 교서에 대한 답이 담겨있다. 1573년 12월 서울에서 흰 무지개가 해를 궤는 괴변이 일어나자 며칠 뒤 선조가 신하들에게 답을 구했다.



율곡은 괴변에 대한 진단과 대책을 내놓는 데 지치지 않고, 왕 스스로 자신의 능력을 키우고 백성을 편안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율곡의 군정개혁에 대한 의지도 눈에 띈다. 병사들의 능력을 높이기 위해 여러 가지 승진과 포상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군역을 진 모든 양인을 군인으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되는 사람은 군인이 되고 남은 사람이 군포를 내어 비용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이 밖에 이들 학자들의 다양한 글을 곁들여 조선시대 최고 지성인들이 지향했던 정치 철학을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역사의 아침·1만3000원 /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그림속에 숨겨진

인류 문화사 되짚다

'그림 정독'과 '신화의 섬, 시칠리아'를 통해 그림 깊이 읽기와 독특한 기행으로 호평을 받아온 박재씨가 폭넓은 시대와 지역을 아우르는 그림들을 역사학적 관점에서 풀어낸 미술 교양서 '그림 읽는 도서관'을 펴냈다.

책은 연대기순으로 꾸민 도서관의 책을 읽듯이 그림을 연대기순, 역사적 사건들로 풀이하고 있다. 시대별로 구성된 각 장은 미노아 문명부터 고대이집트, 동굴과 페르시아, 중세 유럽, 그리고 18세기 파리까지 이르는 다채로운 작품들에 관해 이야기한다.

같은 시기에 그려진 다른 그림, 혹은 다른 시기에 그려진 같은 소재의 그림까지 서로 비교하는 다각적인 관점을 취한다는 점도 이 책의 특징이다.

아트북스·1만6000원 / 김태성기자 bigkim@kwangju.co.kr

프로방스에서 완전한 휴식

정수복 지음

사회학자 정수복씨는 환경 분야를 중심으로 시민운동 현장에 참여하며 많은 글을 써왔다. TV 프로그램 '정수복의 세상 읽기', CBS의 '시사자키' 등의 진행을 맡아 세상과도 소통해왔다.

2002년 새로운 삶을 모색하기 위해 그는 파리로 떠났고, 지금껏 파리에 머물고 있다. 그가 새 책 '프로방스에서 완전한 휴식'을 펴냈다.

책 날개 저자 소개란에 그는 사회학자이자, 작가이자 '전문적인' 산책자로 묘사돼 있다. 새책은 '산책자'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프로방스 지방을 느릿느릿 걸으며 느끼고 가슴에 새겼던 것들을 담고 있다.

느리게... 느리게... 프로방스에서 '다른 삶' 꿈꾸다

이미 남들과는 전혀 다른 시각으로 '파리'를 산책하며 인문학적 사유가 담긴 두 권의 책을 내놓은 그답게 이번 책 역시 예술과 인문학적 단상이 빼곡히 차 있는 풍성한 산책잡이다.

책의 내용은 어느 여름날 복잡한 파리를 떠나 프로방스에서 보낸 '한달간'의 일기를 토대로 하고 있다.

저자는 '별'의 작가 알프스 도데, 마티스와 피카소, 장 지오노의 흔적이 남아 있는 프로방스의 이곳 저곳을 걸으며 그들의 이야기를 다시 들려준다. 역시 이곳에 머물렀던 알베르 카뮈의 이야기 속에서는 현대 사회 지식인의 역할에 대한 의문을 던지고 '현재의' 프로방스에 머물며 또 다른 예술혼을 불태우고 있는 이들, 그곳에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는 평범한 마을 사람들과의 행복한 만남도 소개하고

있다. 저자는 또 아를의 고대 박물관, 만국박물관 사진전 등을 관람하며 예술의 매력에 빠져들기도 한다.

책 말미에는 암스테르담 반 고흐 미술관, 생 레미 드 프로방스의 정신병원 등 화가 고흐의 흔적들에서 느꼈던 이야기를 담아 '반 고흐의 '장소'들을 찾아서'라는 제목으로 실었다.

그의 책은 단순한 여행서와는 다르다. 그래서 이 책을 읽고 나면 자연스럽게 그가 파낸 '파리를 생각하다-도시 걷기의 인문학'(생각의 나무 펴냄), '파리의 장소들-기억과 풍경의 도시 미학'(문학과 지성사 펴냄) 등을 읽고 싶어진다.

문학동네·1만5000원 /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새책



밝힌다.

▲공정의 배신-공정적 사고는 어떻게 우리의 발등을 찍는가=논픽션 작가 바버라 에런라이크가 위기와 재난의 징후를 무시한 '무분별한 긍정주의'의 폐해를 경고한다. 긍정이 넘쳐나는 현대 사회에서 가난, 비만, 실업이라는 현실 문제가 마음가짐만으로 극복 가능한 작은 장애물 정도로 축소되는, 자본주의와 긍정주의의 공생 관계를 (부키·1만3800원)



중국의 변모와 변치 않는 중국을 동시에 보여주는 논픽션이다.

▲중국만세!=넓은 세상을 동경한 중국 미술 공장 여성노동자 장리자(47·장려가)가 자신의 지난 삶을 돌아본 회고록이다. 극적인 삶의 주인공 장리자가 1980년 공장에서 일하기 시작한 후부터 1989년 톈안먼 피의 광장에 나서기까지 10년 간의 일을 다뤘다. 개인의 기록이지만 그 속에 담긴 내용은 거대 중국 자체를 향하고 있다. (현암사·1만8000원)



공은 바깥세상에 나가지 못하고 단절된 생활을 한다.

▲꼬마성자='가방 들어주는 아이' 등 장애인 소재인 동화를 써온 고정욱 씨가 등단 20년 만에 선보이는 첫 에세이집. 1급 지적장애인이 그 장애를 극복하며 힘겹게 살아온 날들을 진솔하고 담백한 어투로 곁에서 이야기하듯 들려준다. 많은 이들이 꿈과 희망을 품고 자신의 삶을 돌이켜볼 수 있게 하는 40여 편의 글이 실렸다. (연인M&B·1만1000원)



낯선 바깥세상에 나가지 못하고 단절된 생활을 한다.

▲아가미='위저드 베이커리'로 제2회 창비청 소년문학상을 받은 소설가 구병모(34)씨의 신작 장편. 죽음의 문턱에서 아가미를 얻게 된 신비스러운 주인공의 슬픈 동화 같은 이야기가 매혹적으로 그려진다. 호수 근처에 사는 노인에게 발견된 아이는 '곤'이라는 이름을 얻고 노인과 그의 손자 강하와 함께 지낸다. 아가미와 비늘을 가진 곤은 바깥세상에 나가지 못하고 단절된 생활을 한다. (자음과모음·1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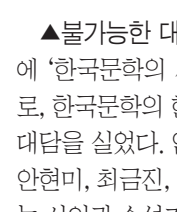
어린 시인과 소설가 12명이 참여했다.

▲나는 시인이다=원로시인 김규동(86)씨의 자전적 에세이집. 책에는 고향에 대한 추억과 온몸으로 겪은 역사의 아픔을 비롯해 1948년 등단 이후 60여년간 시인으로 살아온 삶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전후 한국사회의 모습과 김수영, 오장환, 한하운, 천상병, 박경림 등 저자가 만난 여러 시인에 얽힌 일화도 재밌다. (바이북스·1만2000원)



이 책은 단순한 여행서와는 다르다.

▲직관의 힘=독일의 직관 전문가 엘프리다 밀러-카인츠와 크리스티네 죄닝이 직관적 지능에 대한 이론적·경험적 연구결과를 정리했다. 직관적 지능이란 무엇이며 왜 우리가 직관적 지능을 개발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직관적 지능을 통해 잠재력을 구체적인 현실로 바꿀 수 있는지 등을 설명한다. (글래머·1만5500원)



이 책은 읽고 나면 자연스럽게 그가 파낸 '파리를 생각하다-도시 걷기의 인문학'(생각의 나무 펴냄), '파리의 장소들-기억과 풍경의 도시 미학'(문학과 지성사 펴냄) 등을 읽고 싶어진다.

▲불가능한 대화들=창간 20주년을 맞은 계간 '오늘의 문예비평'에 '한국문학의 새로운 시선'이라는 코너로 연재된 글을 묶은 것으로, 한국문학의 현실과 미래를 바라보는 젊은 작가의 글과 작가와의 대화를 실었다. 염승숙, 김승, 김이설, 김재영, 정한아, 김사과, 김언, 안현미, 최금진, 김이들, 박진성, 이영광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시인과 소설가 12명이 참여했다. (산지나·1만5000원)

금산공인중개사

상무신도심 상·업·용·지 (C1지역) 매매

- 위치 - 상무병원, 롯데마트 건너편, 삼성재개발구역 (4면 광로변)
- 대지면적 - 약 2,850㎡ (180평 분할가능)
- 3.3㎡당 매매가 - 1,300만원
- 공동 복합 APT 주택가능 (최근 도시계획 변경)
- ※ 종합병원/상가/오피스 유흥가능

장점

- 1 주상복합(공동 APT) 가능
- 2 광로변 최고 광고 효과
- 3 롯데마트, 상무병원 건너 삼성재개발 최고 상권
- 4 최고의 교통 접근성 (광주시청 접근과 광·송진 5·18 광로변)
- 5 상무 신도심 중심 상업 변화지구

※ 10층 신축건물임 코너

H.P.011-601-5354

대인동삼일부동산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을 싸게 사실분

상가 전문소개업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광주시내 전지역 상가중 점포가 잘 형성되어 월세가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이 나오고 앞으로 더욱 좋아질 비전있는 곳으로 1층 점포가 4~5칸 정도에 점포가 여러칸인 상가를 대표적이건만 골라물건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 일일이 광고하지 않습니다.

시장님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에는 상가전문 소개업체인광주에서 오랜전통 있는 저희 부동산에 꼭 한번 방문 하시면 책임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FAX)223-1772 전화 011-602-2532 (광주은행 신분점, 대인동 소재서면내편)

다산공인중개사

물류창고 부지구함 매매·임대

광주권

전남일원

자연녹지

생산녹지

8M이상 도로 확보

4500㎡ 이상 (1300평 이상)

공인중개사 공동중개 환영

010-2441-1610

신진공인중개사 (임대전문)

광산구 광산동 동장.양어장(용)매매

- ▶면적 : 4,000평, 철도및유지(그린벨트)관리사 15평(가든기능) 80미터 도로접
- ▶매매가격 : 협의후 결정

고흥군 금산면 토지매매

- ▶계획관리지역 : 면적-14,000평, 8,500평 (10도 경사, 2차선 도로접)
- ▶매매가격 : 협의후 결정

남구 송하동 토지매매

- ▶대 지 : 1500평(6차선 도로접)(700평)
- ▶자연녹지 : 700평 ▶일반공업지역 : 800평
- ▶매매가격 : 협의후 결정

광산구 하남공단내 공장매매

- ▶대 지 : 700평
- ▶건 물 : 415평 (공장, 사무실, 기숙사)
- ▶전 기 : 400kW
- ▶면적 : 900평
- ▶매매가격 : 13억

화순 남면 매리 잡종지매매

- ▶면 적 : 1,800평(보전관리)
- ▶건 물 : 건물 32평
- ▶매매가격 : 2억원

문의 : ☎ 016-644-4265, FAX.523-8558

즉석 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

특허청 서비스표등록 제41-0187289

아이부터 어른까지 3대가 만족하는 즉석 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 고객님의 소중한 추억과 맛있는 행복을 약속합니다.

대·소모임 가능한 500석 완비!

150석, 92석, 52석, 32석, 24석, 12석의 다양한 룸구성으로 쾌적하고 아늑하게 모시겠습니다.

평일	영업시간	성인 (중학생이상)	취학어린이 (초등학생)	미취학어린이 (5세-7세)	토·일 공휴일	영업시간	성인 (중학생이상)	취학어린이 (초등학생)	미취학어린이 (5세-7세)
LUNCH	11:30-15:30	25,000원	12,000원	8,000원	LUNCH	11:30-15:30	31,000원	18,000원	12,000원
DINNER	16:00-22:00	31,000원	18,000원	12,000원	DINNER	16:00-22:00	31,000원	18,000원	12,000원

★ 어린이 요금은 의료보험증 등을 지참하시어 할인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약문의 062)671-1199 유스퀘어 터미널 2층 CGV 옆